



3면

문 대통령 "1000건급자금 투입  
기업 도산 반드시 막겠다"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음 3월 2일) 제2502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 전주발 '착한 임대' 102명 추가 동참

상가 건물주 180명 참여  
468곳 임대료 인하 혜택  
상생분위기 갈수록 확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코로나19 극복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에 지역 내 건물주 102명이 추가로 동참하면서 상생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 2월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첫발을 댄 착한 임대운동은 이후 주요 상권을 비롯한 전주 전역의 상가 건물주 64명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데 이은 지속적인 참여로 총 18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임대료 인하로 468개 점포 영세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2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102명의 건물주(333개 점포)들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는 상생 선언문을 체결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상생 선언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연남 이준본 대표를 비롯한 102명의 건물주(333개 점포)들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는 상생 선언문을 체결했다.

선언문 체결은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로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건물주들은 상생 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 위축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더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상생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풀려있는 전주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간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한 180명의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비율은 10% 이상이 108명(60%)으로 가장 많고 20% 이상 29명(16.1%), 5% 이상 7명(3.8%), 기타 36명(20%) 등이다.

이로 인해 급격한 매출 하락 등 힘든 경제활동 중에 있는 468개 점포 영세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등 고정된 지출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건물주와 영세 소상공인간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 역시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키로 하면서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에 화답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차례 실·국장, 과장, 동장들과의 확대간담회의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강조했다. 동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상인회, 건물주 등을 찾아다니며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실무활동을 펼쳤다.

이후 한옥마을 건물주(14명)들에 이

어 주요 상권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면서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실제로 정부와 전국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예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상생 선언에 참여한 김연남 이준본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로 악조건의 영업환경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나보다 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음을 열어 주신 건물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회적 연대로 총체적인 위기를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道·中 장쑤성 '26년 꽃피운 우정'

마스크 5만장 보내와... 송 지사, 취약계층 우선 배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북도 자매지역인 중국 장쑤성이 전북에 마스크 5만 장을 지원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끈끈한 연대감이 빛을 발하고 있다.

도는 24일 자매도시인 중국 장쑤성이 의료용 마스크 5만 장과 함께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장쑤성 리우친지엔 당서기(서열 1위)는 지난 11일 송하진 도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전북의 코로나19 상황을 위로하고 마스크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송 지사는 장쑤성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방역물품을 보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외국인근로자 등 마스크 구매가 쉽지 않은 취약계층에게 전해 의미있고 소중하게 사용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행정명령과 행정지도가 내려진 요양병원,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장쑤성이 우리지역에 마스크를 보내온 것은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1월 30일 송 지사가 직접 답서기와 성장에게 위로 서한을 보내 아픔을 달래고 격려한 것에 대한 답례 의미가 크다.

송 지사와 리우친지엔 당서기가 지난해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 만나며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친밀도를 높인 것도 한몫했다.

장쑤성은 전북도의 첫 해외 자매 도시로 그간 사회 전 분야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오면서 상호 신뢰와 우의를 쌓아왔다.

두 지역이 26년간 상호교류를 통해 다져온 우정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우호관계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인류 공동의 문제로 국경을 초월한 응원과 지원,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우의를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대구 환자·도내 의료진 힘내세요"

군산·남원·진안의료원에  
손편지 등 도민 온정 '붓물'

대구에서 전복으로 온 코로나19 환자들과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을 향한 도민들의 격려와 응원의 온정이 분기운보다 더 따뜻하게 연이어 답지하고 있다.

치료받을 병상이 없어 대구에서 자가격리 상태로 지내다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인 군산·남원·진안의료원과 생활치료센터인 김제의 삼성생명 전주연수소로 옮겨와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도민들의 따스한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의료진도 피로를 이겨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군산의료원에는 군산시민이라고 밝힌 한 대학생의 손편지가 음료수, 마스크 등과 함께 도착했다. 이 대학생은 편지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환우분들이 입원하셨다고 들어서 정말 작은 마음이지만 노력하시는 분들께 응원이 될까 싶어 간단하게 준비했다"며 "저보다 더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며 마스크와 소독물품도 전해왔다.

군산 나운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과 메시지를 담은 빵과 음료를 군산의료원에 마음을 전했다. 아이들은 고사리같은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참 멋져요.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환자분들, 의료진분들 힘내세요!" 라는 글과 그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남원의료원에도 전주시 전주벙카페 회원들이 "남원의료원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완쾌하셔서 대구로 가시기를 바란다"며 대구지역에서 온 환자들을 위로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은 마스크

700장을 보내오기도 했고, 시금치와 상추, 과일 등 식재료와 간식거리를 비롯한 옷과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후원 물품이 개인과 단체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진안군의료원에는 지난 19일 먼 길 오신 대구지역 환자분들을 위로하며 "편안하게 휴식 오셨다 생각하고 지내다 가셨으면 좋겠다. 빠른 쾌유를 응원한다"며 진안홍삼고추장과 마른멸치볶음, 홍삼카스테라를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사천군에 사는 장일석 새금용사 회연구소 이사장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전해왔 각 25상자,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 50상자 등 전해왔 100상자를 보내며 대구에서 온 환자들을 위로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이 외에도 신문사, 빵집, 커피숍, 음식점, 보험회사 등 지역의 단체와 기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앞다투어 마음이 담긴 기부 물품을 매일 보내와 코로나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청·노조, 온누리상품권 3억여원 구입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위기에 3억여원의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3억3천만 원에 이르는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조속히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이날 송하진 지사와 김형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만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청 직원들이 앞장서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엔 구매할 온누리상품권을 조속

히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노조와 협의해 도청 주변 음식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했으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매주 분청 16개 실·국·본부별 외부식당 이용 요일제를 운영해 전 직원들이 주 2회 외부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질병관리본부 완주군

#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딸~ 밥은 잘 챙겨 먹어?"  
"먹었지~ 엄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까운 이들도 멀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마음만큼은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며 자주 격려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